

8인 모임 실효성 ‘글쎄요’ …기대보다 우려

르포 거리두기 완화 첫날 상무지구 가보니

접종 확인 번거로워…추석 대규모 감염 불안
“인원보다 시간 제한 풀어야 매출 상승할 것”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도 번거롭고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실효성이 있을지 현재로서는 의문이 들어요.”

지난 6일부터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포함,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가 적용됐지만 현장에서는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컸다.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최대 8인 사적 모임 허용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물론 식당·카페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번거로움과 함께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지난 6일 저녁 7시께 찾은 서구 상무지구. 완화된 거리두기가 적용됐음에도 카페와 음식점, 술집 등은 한산했다. 평일임을 감안하더라도 저녁시간 거리에도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일대의 가게 수십 군데를 돌아다녔지만 평균적으로 손님은 2~3명 정도가 전부로, 지난 3단계 격상 이후의 일상과 다를 것 없는 풍경이었다.

한 카페 직원 김모씨(23)는 “거리두기가 조금 풀린 것과는 상관없이 손님

은 여느 때와 비슷하게 적다”면서 “최대 8인 규모 손님이 방문할 경우를 대비해 접종 확인 등을 숙지했지만 5인 이상 오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업주들은 5인 이상 손님이 올 경우 일일이 접종 사실을 확인하기도 번거롭고 협조도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푸념했다.

5인 이상이 입장할 경우 ‘백신접종 완료증명서’ 또는 전자예방접종증명 앱인 ‘COOV(쿠브)’로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접종증명서를 소지하거나 모바일 앱을 내려받은 손님들이 드물다는 것이다.

한 레스토랑 점주 이모씨는 “접종완료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출입명부 작성이나 QR코드 스캔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면서 “증명 협조를 부탁드리면 제재야 허겁지겁 증명서를 발급받는 이들이 많다. ‘접종완료’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1차 접종만 한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손님들 중에는 바뀐 거리두기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광주지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모임 기준을 완화해 접종자 포함 총 8인까지 허용했지만 7일 오후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한 술집이 여전히 한산하다.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는 말에 놀라면서도 접종 완료율이 낮은 젊은이들에게는 크게 소용없을 것 같다는 반응이었다.

대학생 박모씨(22)는 “카페나 술집 등은 주로 젊은이들이 많이 다닐 텐데, 나부터도 아직 1차 접종도 받지 않은 만큼 이런 유흥의 거리에서는 8인 모임 지침이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고 의문을 표했다.

몇몇 업주들은 손님 증가로 인한 매출 상승을 기대하면서도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기도 했다. 인원수보다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깃집 점주 김모씨(62)는 “연일 이어진 3단계 거리두기로 매출이 하락한 상황에서 추석을 목전에 두고 발표된 이번 조처는 그나마 다행이다”면서도 “백

신을 접종받은 사람이라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닌 만큼 대규모 인원이 오가다가 감염이 확산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도 하다”고 우려했다.

술집을 운영하는 이모씨(36)는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이번 조치라면, 인원수보다는 저녁 10시로 제한된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싶다”고 아쉬워했다. /오선우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20~27	흑산도	22~26
담양	20~28	구례	20~29
화순	20~27	곡성	20~28
영광	21~26	완도	21~28
함평	20~27	강진	21~28
무안	21~26	장흥	20~28
영암	21~27	해남	20~27
진도	21~26	고흥	20~29
신안	21~26	보성	19~28

목포	만조 03:05 15:14 간조 08:18 20:28	여수	만조 09:52 22:15 간조 03:39 15:52
----	----------------------------------	----	----------------------------------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마른 고추 상습절도 여장 60대 딸미

마트서 훔쳐 되팔아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여성으로 분장하고 마른 고추를 상습적으로 훔친 남성이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마트 등에서 마른 고추를 여러 차례 훔쳐 되팔 혐의(절도)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광주 북구의 한 마트에서 마른 고추 2포대를 훔치는 등 7차례에 걸쳐 250만원 상당의 마른 고추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원피스를 입은 여성 복장을 한 용의자의 신상을 토대로 추측에 나섰다. 그러나 추적 도중 이 여성의 행적이 갑작

같이 사라져 버려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끈질긴 수사 끝에 이 여성 용의자가 마른 고추를 들고 도주하는 도중, 남성 복장으로 갈아입는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결국 자택에서 검거됐다.

비슷한 수법으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여장을 하고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소 후 지병이 있어 직업을 구하지 못한 A씨는 생활비와 병원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가 우려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전자발찌 도주 마창진 16일 만 검거

경찰 눈썰미에 ‘덜미’ …장흥토요시장 인근서 순찰 중 발견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성별치 전과자 마창진(50)이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의 눈썰미에 걸려 도주 16일 만에 붙잡혔다.

마씨를 검거한 이들은 장흥 읍내지구 대 순찰군 경위와 김재현 순경이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6일 야간근무를 하며 마창진이 과거 출몰했거나 평소 동선과 겹치는 구간에서는 경광등을 끄고 순찰하고 있었다.

김 순경은 정남진장흥토요시장 인근 전변을 차로 순찰하던 도중 40~50m 떨어진 시장 골목에서 한 남성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마씨의 집과 도로로 불과 5분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잡나의 순간이었으나 정확한 인상착의도 보이지 않았지만 늦은 밤 남자가 혼자 팔자로 걷는 것을 보고 마씨가 아닐까 의심했다.

이전부터 마씨를 알고 있었던 순경 위는 가까이 다가가면서 마씨가 맞다고 확인, 검거했다.

한편, 광주보호관찰소 특별사범경찰관은 해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마씨를 조사하고 있다.

마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 35분께 장흥군 장평면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씨는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5년과 출소 후 7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는 최근에도 장흥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상태였다.

마씨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 기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은 금지됐지만 외출 제한 명령 등을 내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보호관찰소는 도주 기간 마씨의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장흥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고 숨어 지낸 것으로 보고 있다. /장흥=이옥현 기자

기아차 취업사기 항소심도 징역 15년

135억원대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2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모씨(35)의 항소심에서 장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616명의 피해자에게 130억원 이상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편취한 돈을 사치품 구입과 도박에 탕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목사 박모씨(53)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회 교인 616명을 상대로 기아차 공장 생산직군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134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자신이 협력업체에 다니다가 돈을 주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는 박씨를 통해 소개받은 교인 등을 상대로 사기를 벌였고 박씨를 상대로도 1억6,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박씨를 상대로 사기 친 것이 아니라 공범 관계라면 박씨에게서 도피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환준 기자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상무 수(秀)치과 김수관 원장

‘익스퍼트스케이프(Expertscape)’

2020년 임플란트 수술 권위자, 한국 2위에 선정!!!

‘세계적 명의, 대한민국 Top Class, 대한민국 임플란트 수술 권위자 김수관 원장’

보건복지부 인공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인 상무 수(秀)치과의원 치의학박사 김수관 원장이 2004년부터 17년간 세계 3대 인명사전(미국, 유럽)에 등재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의학분야 논문평가기관인 의료 전문가 및 기관의 순위를 매기는 ‘익스퍼트스케이프 (Expertscape)’ 에 2020년 임플란트 수술 권위자 한국 2위에 선정 되었습니다.

수도권 지역 외 타지역 부분에서 임플란트 수술 전문가로 1위를 차지하며, 빛고를 광주에 임플란트 전문 수술 권위자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Expertscape는 세계에 발표된 치의학 관련한 연구 논문을 데이터뱅크화하여 치의학 연구 분야별 전문가를 평가하여 연구자의 세계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 명품 임플란트, 보톡스, 턱관절 전문의
- 사랑니 발치 전문의
- 레이저 무통 수술

상무수치과의원

상무역 1번 출구 DY빌딩 2층
Tel. 062-371-4028

- 평 일 오전 9:00~오후 6:30 (수요일 오전 휴진)
- 야간진료 화요일 (오후 8:30까지)
- 토 일 오전 9:00~오후 1:30

상무 수(秀)치과의 10가지 장점!

- 1 디지털 첨단 의료장비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의료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임플란트 등을 진료하고 있는 치과
- 2 4,000건 이상의 임플란트 진료 건수와 5,000건 이상의 발치 건수 등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대한민국 대표 임플란트 치과
- 3 세계 3대 인명사전 최연소 등재 및 18년간 모두 등재한 치과의사
- 4 대학병원 치과병원장, 치과대학 학장, 5개 전국 규모 학회장 역임한 최연소 치과의사
- 5 치과분야 104건의 다양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최첨단 치과의사
- 6 치과에 관한 책을 100여권 발간한 치과의사
- 7 신문과 방송에 250여회 출연하는 등 30여년 동안 임상 경험과 다양한 치료 결과를 보여준 치과의사
- 8 200여회 특강을 하는 등 많은 치과의사와 후배를 가르치는 치과의사
- 9 항상 우선적으로 환자분들을 생각하고,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치료계획 수립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심미적이고 기능적인 치료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분들과 가족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치과
- 10 오랜 기간동안 기부(13억여원)와 의료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늘 함께 하고 있는 치과